

가속화되는 디지털시대에서의 『考試界』의 역할 제고

月刊『考試界』 창간 66주년을 축하합니다.

특히 제가 고려대학교 총장 재임시에 창간 52주년 기념 축하를 한 후 14년이 지난 오늘 사단법인 한국법학원 원장으로서 66주년을 다시 한번 더 축하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月刊『考試界』는 법학자로 새출발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 인연이 있어서 더욱 감개무량합니다. 저의 月刊『考試界』와의 인연은 육군사관학교에서 전임강사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예편하여 고려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 독일 유학을 준비하면서 고려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강원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학문에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던 1976년 3월호에 「명의개서의 실념과 신주인수권의 귀속」이라는 논문을 게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77년 2월호에 「소규모주식회사에 있어서 이사의 자기거래」, 독일유학을 떠나면서 1977년 9월에 쓴 「주식배당」이라는 글을 1977년 10월호에 실었는데, 전임교수도 아닌 저의 소논문을 게재해 준 月刊『考試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1984년 3월에 모교인 고려대학교 법대 부교수로 임용되고서 1984년 10월호에 「상법은 기업법인

가?」라는 국내 상사법학계의 주류를 비판한 글을 실으면서 학계에서도 「상법은 상인법이다」라는 새로운 흐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논문을 실어준 月刊『考試界』의 배려에 다시 한 번 감동한 사건이었습니다.

月刊『考試界』가 1956년 6월에 창간될 때에는 국가고시학회의 주도였고, 기본 철학은 「將來 國家의 大任擔當을 爲한 學徒의 考試學術의 切磋琢磨와 多難한 邦家의 國救에 驅馳될 俊才가 輩出되기를 祈求하면서 宇內著名한 專門大家의 蘊蓄의 기우림을 받아 本誌刊行의 壯舉를 보게 됨이다.」(李仁 국가고시학회 명예회장의 창간사) 이었습니다. 이러한 원대한 뜻을 지닌 月刊『考試界』의 창간과 같은 해 7월 31일에 법무부 공고 제38호로 허가된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의 출범이 있었습니다.

한국법학원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기타 외국법을 조화시킴으로서 법률질서의 완전을 기하고,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향상과 사법행정의 재건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 한국법학원의 원장에 취임한 저로서는 설립시기와 취지를 함께하는 月刊

이 기 수

- 현) 한국법학원 원장
- 고려대학교 총장
-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명예회장
- 양형위원회 위원장



『考試界』와 한국법학원이 상호 협력하면서 법률문화의 창달에 공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1945년에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서 1956년까지 황천초등학교에 다녔으며, 어린 생각에서도 배움의 길에 들어서서 첫 행보가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1956년에 들어서서 진주로의 유학의 꿈을 심었으며, 6학년이 되던 1957년에 진주 배영초등학교로 유학하여 오늘에 이르는 배움의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月刊『考試界』의 창간과 한국법학원의 설립 그리고 저의 학문하는 삶의 시작이 1956년에 이루어졌고, 이러한 인연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법학원의 원장을 맡아서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창달과 외국법제 연구 등을 통한 법제도의 민주화와 선진화에 매진하려고 하는 바, 月刊『考試界』

의 기본 취지도 같다는 생각에서 한국법학원과 기본 목적이 같은 月刊『考試界』의 무궁한 발전과 법률문화의 창달에 함께 힘을 보태고자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금년 10월 27일과 28일에 개최되는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가 「디지털시대의 가속화와 법적 과제」라는 대주제 하에 사이버 세계와 권리보호, 데이터의 독점과 공유경제, 디지털시대의 자유와 국가개입이라는 3개의 중주제로 총26개의 학회가 참여하는 한국법률가대회에 月刊『考試界』도 그 합당한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月刊『考試界』를 이끌어 가는 모든 분들과 月刊『考試界』를 사랑하는 애독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